

반응요구 화행의 유형 설정*

김미령**

- I. 머리말
- II. 유형 설정의 기준
 - 1. 내용에 관한 의도
 - 2. 들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도
- III. 화행의 유형 설정
 - 1. 제안 화행
 - 2. 허가 화행
 - 3. 권유 화행
 - 4. 요청 화행
 - 5. 명령 화행
 - 6. 경고 화행
 - 7. 질문 화행
 - 8. 호소 화행
- IV. 맺음말

【요약】

언어를 사회적인 약속으로서 외부 세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보았을 때, 언어의 형식은 말할이의 의도에 의해 달리 선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5-A00058)

** 인제대학교 연구교수

택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발화 수반력은 언어의 형식이 아니라 말할이의 의도에 따라 살피져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말할이의 의도를 바탕으로 하여, 말할이가 발화를 통해 들을이의 반응까지 요구하는 경우의 화행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말할이의 의도를 내용에 관한 의도와 들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도로 나누고, 내용에 관한 의도에서는 말할이가 누구에게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가를 살펴서, 반응의 대상이 대화 참여자인 특정의 들을이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반응이 행위에 관한 것인지 사고에 관한 것인지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 들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도에서는 말할이와 들을이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대화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 위협의 기준을 설정하여서,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하여 제안 화행, 허가 화행, 권유 화행, 요청 화행, 명령 화행, 경고 화행, 질문 화행, 호소 화행을 설정하였다.

I. 머리말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 속의 여러 가지 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생활 속에서 주고 받는 여러 가지 말들이 실제로는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행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발화가 하나의 행위로 작용한다는 것은 말할이가 의도하는 목적이 발화에 들어 있어서 이것이 표현되어 외부세계로 나왔을 때는 외부 세계와 영향관계를 가지는 하나의 행위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발화가 작용하게 되는 행위로 말미암아 발화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 때 발화가 가지는 힘, 즉 특정의 발화 수반력은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 (1) ㄱ.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아들에게) 이제 텔레비전 그만 보고 공부 좀 해라.
 ㄱ'. 시험일이 이제 며칠 남았나?
 ㄱ". 시험일이 다 되었네.
- ㄴ. 알았어요, 엄마.
 ㄴ'. 이틀 남았어요, 엄마.

(1)은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이다. 여기서 어머니는 아들이 ‘텔레비전을 끄고 공부할 것’을 의도하는데, 먼저 (1ㄱ)에서는 어머니가 지금 바로 공부할 것을 명령형 어미를 써서 말하고 있고, (1ㄱ')에서는 시험일까지의 남은 기간에 대해 의문형 어미를 써서 말하고 있으며, (1ㄱ")에서는 다가온 시험일에 대해 서술형 어미를 써서 말하고 있다. 결국 (1ㄱ), (1ㄱ'), (1ㄱ")의 발화에서 어머니가 결과적으로 의도하는 발화 수반력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1ㄱ)처럼 명령의 문법 표지로써 직접적으로 발화 수반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1ㄱ')이나 (1ㄱ")처럼 명령의 문법 표지 없이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아들은 어머니의 의도가 공부하라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1ㄴ)처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1ㄱ')나 (1ㄱ")처럼 표현이 간접적인 발화를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여 (1ㄴ')처럼 말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들을이가 말할이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 되어 더 이상의 원활한 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발화 수반력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간접적인 경우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어서¹⁾ 대화 상

1) Halliday(1973: 65)에서는 같은 목적을 여러 가지 표현법을 써서 나타낸

황에서 언어 형식만을 가지고 발화 수반력을 파악하는 것은 의사소통상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발화 수반력의 파악을 위하여 여러 학자들이 화행의 유형에 대해 연구를 해 왔다. 외국의 경우에는 오스틴(1962)과 서얼(1985), 프레이즈(1974)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유형간의 개념이 뚜렷하지 못하거나 추상적이라든지 중복적인 분류의 단점이 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도, 박영수(1981)에서는 수행 동사를 의식적 수행 동사와 통속적 수행 동사로 분류하여, 의식적 수행 동사는 다시 법 행위 동사, 종교 행위 동사, 사무 행위 동사로, 통속적 수행 동사는 단정 동사와 평가 동사로 세분하고 있고, 장석진(1993)에서는 우리말의 수행 동사를 ‘판정, 평서, 언약, 전달, 정표, 지시, 질문, 행사’의 8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이준희(2005)에서는 화행의 유형을 크게 주관적 화행과 객관적 화행으로 나누고, 주관적 화행은 다시 화자 중심 화행과 청자 중심의 화행으로, 객관적 화행은 도덕적 제약이 있는 화행과 물리적 제약이 있는 화행으로 각각 나누고 있다.²⁾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수행동사를 유형화하는 것이거나 개별적인 화행을 포괄적으로 묶어주는 것이어서 개별적인 화행이 가지게 되는 특성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점이 있으며, 또한 수행 동사 중심으로

것으로서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훈계를 할 때 쓰는 가능한 표현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한국사회언어학회 엮음, 2004: 114-115 재인용)

- (1) 그건 아주 버릇없는 짓이야. (That's very naughty of you.)
- (2) 다시 그런 짓 하면 때릴 거야. (I'll smack you if you do that again.)
- (3) 네가 그런 짓 하는 것 싫어. (I don't like you to do that.)
- (4) 그런 짓은 네게 어울리지 않아. (That thing doesn't belong to you.)
- (5) 네가 그런 짓을 하면 기분이 나쁘단다.
(You're making me very unhappy by doing that.)
- (6) 그런 짓 하면 안돼. (That's not allowed.)

2) 김미령(2005: 99-100) 참조.

화행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서 수행 동사가 발화에 직접 쓰이는 경우가 드문 우리말의 특성으로 볼 때는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³⁾

그러므로 화행의 유형 설정에 있어서는 우리말의 특성에 맞는 유형이 설정되어야 하며, 각각의 개별적인 화행이 다른 화행과 구분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도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행이 대화에서 다루어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의 구분 없이 주는 말의 위치에 있는 선행 발화 중심으로만 다루어졌기 때문에, 화행의 유형 설정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김미령(2005)에서는 대화에서의 발화를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로 나누고, 우선 선행 발화를 대상으로 하여 말할이의 의도가 전달에만 목적이 있는 경우와 들을이의 반응까지 의도하는 경우로 나눈 뒤, 그 중에서 전달에만 목적이 있는 화행에 한하여 기술하였다.⁴⁾ 거기서는 ‘말할이가 발화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하는 말할이의 의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고, 먼저 말할이가 대화의 발화 시점에서 들을이의 반응을 처음부터 의도했는가에 따라서 발화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3) 이 외에 월의 기능적인 분류는 김일웅(1990)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의향법에 의한 월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월 분류에서의 첫째 기준을 기능으로 하고, 이와 아울러 임자말의 가리킴, 풀이말의 종류, 문법범주의 실현 모습 따위의 형식적 특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4) 전달 목적 화행이란 말할이가 발화를 통해 내용의 전달만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이가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은 반응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발화에는 의도가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런 전달 목적 화행의 발화에도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화에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의도가 암시적이거나 내면적이어서 명시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응에 대한 의도의 유무가 불분명하므로 이런 경우의 발화는 초점이 전달에 목적이 있다고 보고, 전달 목적 화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2) ㄱ. 철수가 다음 달에 결혼한대요.

ㄴ. (그래?)⁵⁾

(3) ㄱ. 가방 좀 들어주시겠어요?

ㄴ. (아, 그러죠.)

(2-3)의 선행 발화는 말할이의 의도가 들어있는 발화이지만, (2-ㄱ)이 들을이의 특별한 반응을 의도하지 않은 것임에 반해 (3-ㄱ)은 들을이의 긍정적인 반응을 의도한 발화라고 하겠다. 이처럼 발화에는 (2-ㄱ)처럼 내용 전달이 목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3-ㄱ)처럼 특별한 반응까지 이끌어 내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행의 유형을 살펴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말할이의 의도에 따라 발화를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김미령(2005)에 이어서, 대화에서의 선행 발화를 대상으로 하여 말할이의 의도가 들을이의 반응까지 의도하는 경우의 화행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대화의 짝을 통해 제시되는 상황을 대화의 전제로 보고,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발화들은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서 논의하기로 한다.⁶⁾

5) 여기서 제시되는 후행 발화는 상황을 보여주는 의미만 지니므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소괄호로 묶어둔다.

6) 화행의 유형을 개별적인 상황이나 변별적인 발화 수반력 각각에 초점을 두고 구분하다 보면 발화의 수만큼이나 화행의 유형도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공통점이 있는 유사한 화행은 하나의 화행으로 묶어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형 설정의 기준

들음이의 반응까지 의도하는 발화에서 말할이의 의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4) ㄱ. 김 과장, 내일까지는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ㄴ. (네, 알겠습니다.)

(4)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대화이다. 여기서 (4ㄱ)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마무리하도록 지시하는 발화로, 들음이의 특정 반응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들음이의 반응까지 의도한 발화로 볼 수 있다. 그런데 (4ㄱ)의 발화를 좀 더 살펴보면, 말할이는 들음이에 관한 말을 하고 있고, 들음이에 관한 것 중에서, 즉 들음이의 생각이나 느낌, 혹은 행위 중에서도 행위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발화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더하고자 하는 말할이의 의도는 보이지 않으며, 발화에서 들음이가 가지게 될 지도 모르는 부담에 대해서는 말할이가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4ㄱ)과 같이, 대화 상황의 발화에는 무엇에 관한 말을 하는가의 내용의 면과 들음이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가의 관계의 면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달리 말한다면 말할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의도’와 들음이와의 관계에서 고려되는 ‘관계에 관한 의도’가 발화에 함께 들어 있어서 이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구체적인 화행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두 가지의 의도가 결합되어 결국 하나의 화행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행의 유형을 살피는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 의도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화행의 유형에 대한 설정도 이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한다.

1. 내용에 관한 의도

발화의 내용에 들어 있는 말할이의 의도는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가 항상 문제가 된다. 이는 발화에서 말할이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발화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발화가 가지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말할이가 의도하는 반응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발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겠다.

(5) ㄱ. 물 좀 가져 오너라.

ㄴ. 영희가 그 일을 하게 해.

ㄷ. 지금 내리실 손님은 승강구 쪽으로 나와 주세요.

(5)는 말할이가 들을이의 반응을 의도하고 있는 발화들이다. 각 경우에서 말할이가 의도하는 것이 들을이로 하여금, (5ㄱ)은 물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5ㄴ)은 영희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며, (5ㄷ)은 승강구 쪽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셋 모두 들을이의 특별한 반응을 의도하는 발화이기는 하지만, (5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즉, (5ㄱ)은 말할이의 의도대로 대화 참여자인 들을이가 반응을 직접 보이는 것이어서 말할이의 의도가 들을이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비해, (5ㄴ)은 말할이의 궁극적 의도인 ‘영희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영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들을이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고, (5ㄷ)은 다수의 들을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몇몇의 들을이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말할이의 의도가 선택적이면서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은 말할이가 의도하는 목적의 대상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들을이가 아닌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절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반응의 대상은 항상 대화 참여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말할이가 의도하는 것은 영희에 대한 것이지만 상황적으로 영희가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영희에게 요구하는 식의 표현으로는 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 발화가 가지는 화행의 성격은 달라진다. 더욱이 반응의 대상이 들을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이 아닐 경우에는 말할이가 의도하는 것이 특정인일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역시 발화가 가지는 화행의 성격도 달라진다.

따라서 말할이가 발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반응의 대상은 반드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의 들을이어야 하며, 반응의 대상이 대화 참여자인 들을이가 아니거나 또 참여자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에는 발화가 가지는 화행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발화를 통해 말할이가 의도하는 반응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화행의 유형 설정에서 살펴질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발화 내용에서 말할이가 의도하는 들을이의 반응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발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 보겠다.

(6) ㄱ. 친구 집에 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오너라.

ㄴ. (네.)

(7) ㄱ. 철수야, 엄마 가방 어디에 두었니?

ㄴ. (거실에요.)

(6-7)은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이다. (6ㄱ), (7ㄱ)에서 어머니는 특정의 들을이인 아들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의도하고 있다. 즉, (6

ㄱ)에서는 아들이 집으로 바로 오도록 의도하고 있고, (7ㄱ)에서는 아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하도록 의도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6ㄱ)은 들을이의 반응 중 어떤 행위를 이끌어 내려는 발화이고, (7ㄱ)은 들을이의 반응 중 들을이의 생각을 이끌어 내려는 발화이다.

여기서 말할이가 의도하는 들을이의 반응은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행위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행위로 나타나고 생각의 표현을 의도하는 경우에는 생각의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할이가 의도하는 들을이의 반응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발화의 영향력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말할이가 의도하는 반응이 들을이의 행위에 관한 것인지, 생각이나 느낌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발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말할이가 의도하는 반응이 들을이의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는 것은 화행의 유형 설정에서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말할이의 의도 중에서 발화내용에 관한 것으로는 반응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발화가 들을이의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살펴 볼 수가 있는데, 반응의 대상이 대화 참여자인 특정의 들을이인가 하는 것과 들을이의 반응이 행위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생각이나 느낌과 같은 사고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발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화행의 유형 설정에 있어 기준으로 세울 수 있다.

2. 들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도

원만하고 만족스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것은 개인의 관심과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화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되면 의도는 비록 전달되었을지라도 목적 달성이 힘들어 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들음이 중심적이게 되면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거나 의도가 불분명하게 전달될 위험성이 있어 그 역시도 목적 달성이 힘들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음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즉, 말할이가 들음자에게 어떤 반응을 의도하는 경우라면 사회 문화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대방에게 적합한 발화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8) ㄱ. 사장님, 지금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ㄴ. (그렇게 해요)

(9) ㄱ. 사장님, 지금 당장 회의를 소집하세요.
 ㄴ. (??)

(8-9)는 직장에서 부하 직원과 사장의 발화이다.⁷⁾ 여기서 부하 직원이 ‘지금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의도하는 발화를 할 경우, 같은 의도라 할지라도 (8-ㄱ)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9-ㄱ)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9-ㄱ)의 발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부하 직원이 사장에게 발화한 화행에서의 문제 때문이다. 즉, 말할이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음자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들음자에 대한 자신의 힘의 크기, 친밀성의 정도,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격식성의 유무⁸⁾ 따위를 고려해서 발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ㄱ)처럼 관계를 전

7) 이 후의 보기 상황에서 나오는 말할이와 들음이의 관계는 특별한 내용이 전제되지 않은 일반적인 관계를 말한다.

8) 김미령(2003: 95) 참조

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만 강력하게 내세웠을 때에는 문제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만한 대화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들을이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하고도 구체적인 화행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리하여 화행의 유형을 살피는데 있어서도 대화 참여자들끼리의 관계를 바탕으로 여기에 말할이가 어떠한 의도를 더하였는가 하는, 들을이와의 관계에서 덧붙인 의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들을이와의 관계에서 말할이가 덧붙인 의도로 인해 발화가 가지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진행될 대화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발화가 대화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발화가 가지는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화가 가지는 영향력이란 곧, 화행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행의 유형을 살피는데 있어서도 앞으로의 대화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살핌으로써 발화의 성격을 설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화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먼저 친교와 부담⁹⁾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말할이가 들을이에 대해 친교의 목적을 가지는가 하는 것과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부담을 주는가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대화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강제성과 선택권¹⁰⁾을 들 수가 있다. 즉, 말할이가 의도하는 것이 들을이에 대해 강제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과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가 하는 것으로, 들을

9) ‘친교’와 ‘부담’의 항목은 리치(1983)의 공손원리에서 원용한 것으로, 요령의 격률과 관용의 격률에 나오는 “혜택”과 “부담”에 관계한다.

10) ‘강제성’과 ‘선택권’의 항목은 크게 보면 “부담”과 “혜택”의 하위 항목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게 의도적으로 주게 되는 이것들로 인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¹¹⁾ 그것은 말할이가 선행 발화를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후행 발화의 성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대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행 발화의 성격을 살피기 위해서 들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의 유무 사항을 살피는 것은 화행의 유형 설정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

그래서 각각의 조건으로 발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선행 발화에 들어있는 발화자의 의도에 들을이에 대한 친교의 목적이 있는가에 따라 발화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겠다.

(10) ㄱ. 그렇게 여행이 가고 싶으면 이번 주에 갔다 와라.

ㄴ. (네, 고맙습니다.)

(11) ㄱ. 잔말 말고 지금 당장 집으로 와.

ㄴ. (알았어요.)

(10-11)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이다. 여기서 (10ㄱ), (11ㄱ)에서의 발화는 들을이의 행위에 관하여 의도하는 것으로 들을이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발화들이다. 즉, (10ㄱ)은 들을이가 원하던 여행을 이번 주에 가도록 하는 말이고, (11ㄱ)은 들을이가 원하지는 않지만 곧장 집으로 오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말이다. 여기서 (10ㄱ)은 들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발화이기 때문에 말할이가 친교를 의도한다고 볼 수 있고, 대화가 가지는 방향도 말

11) 여기서 제시한 기준 외에도 발화의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대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영향력 있는 요소로서 우선 이들을 설정하고, 이것 중심으로만 화행의 유형을 살피기로 한다.

할이와 들을이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화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7)은 이와는 달리 들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이가 친교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고, 대화의 방향도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따라서 발화에 친교의 목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발화가 대화에 미치게 되는 영향 관계가 달라지므로, 말할이의 의도에 친교의 목적이 있는가 하는 점은 화행의 유형 설정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부담을 주는가에 따라서 발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겠다.

부담이란 본래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¹³⁾을 말하지만, 대화 상황에서의 부담은 발화에 대하여 들을이가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중압감으로서 의무나 책임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도 생길 수 있다.

- (12) ㄱ. 철수 넌 잘 생겼지, 착하지, 똑똑하지, 거기다가 능력까지 있으니, 아무튼 대한민국 일등 신랑감이야.
 ㄴ. (아, 네.)

- (13) ㄱ. 철수야, 어른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해야지?
 ㄴ. (아, 네. 죄송합니다.)

12) ‘알았어요’와 같은 발화를 김미령(2003)에서는 불만형 대응 발화라 하고, 말할이의 발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중지시키고자 하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다른 불만형 대응 발화와는 달리 표면적으로 수용의 태도를 보이는 ‘알았어요’와 같은 발화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들을이가 가지는 불만이 전제가 되고 또한 중지의 의미를 가지는 발화이므로 이 때 대화가 가지는 방향은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13) 국립국어연구원(1999: 2881) 참조

(12-13)은 집안 어른과 조카의 대화이다. 여기서 (12ㄱ)은 철수에게 과분할 정도의 칭찬을 하고 있고, (13ㄱ)은 철수의 인사성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 때 (12ㄱ)에 대해 들을이는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의 부담도 동시에 느끼게 되며, (13ㄱ)의 경우에도 말할이의 발화에 대해 심리적인 불편함과 함께 부담을 역시 느끼게 된다.

이렇듯 부담이란 반드시 의무나 책임이 따르는 상황이 아니라도 (12ㄱ)처럼 친교적으로 과도한 경우나, (13ㄱ)처럼 비친교적인 경우에도 가질 수 있으며, 때로는 강요에 의해 중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말할이가 의도적으로 들을이에게 부담을 줄 경우에는 들을이는 자신이 느낀 부담을 반영하여 반응을 하게 된다.

(14) ㄱ.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은 꼭 좀 와 주세요.
나. (그렇게요)

(15) ㄱ. 지금 도서관에 가는 것은 어때요?
나. (아니예요, 나중에 가요.)

(14-15)는 말할이의 발화에 대해 들을이가 느끼는 부담이 다른 경우의 대화이다. 먼저, (14ㄱ)은 들을이가 반드시 와 주기를 의도하고 있어 들을이가 이에 대한 중압감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경우의 발화이고, (15ㄱ)은 도서관에 가는 것에 대해 들을이가 선택하기를 의도하고 있어 들을이가 어떠한 중압감 없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경우의 발화이다. 이럴 경우에 들을이는 발화에서 느낀 중압감으로 부담의 정도에 따라 반응을 달리 하게 되므로 들을이에게 부담을 주는 발화가 대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부담을 주는가에 따라서 발화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말할이의 의도가 들을이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가 하는 점은 화행의 유형 설정에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발화에 들을이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발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겠다. 일반적으로 발화에 강제성이 있으면 들을이에게 부담을 주고, 강제성이 없으면 부담을 주지 않아서 강제성과 부담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담과 강제성은 다른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16) ㄱ.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ㄴ. (네, 알겠습니다.)

- (17) ㄱ. 넌 집이 어디니?
 ㄴ. (울산입니다.)

(16-17)은 말할이의 발화에 들을이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대화이다. 즉, 말할이가 들을이로 하여금 특정의 무엇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16ㄱ)은 들을이가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반해 (17ㄱ)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발화에 강제성이 있다고 하여 들을이가 반드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강제성이 없다고 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¹⁴⁾ 강제성과 부담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화행의 유형 설정에 있어서도 이들이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발화에 들을이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가에 따라 발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겠다.

14) 보기를 들어 “돈 좀 빌려 줄래?”와 같은 발화는 들을이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들을이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

- (18) ㄱ. 빨리 교실 청소를 끝내도록 해.
 ㄴ. (네, 선생님.)

- (19) ㄱ. 언니, 내 숙제 좀 도와 줘.
 ㄴ. (나 지금 바빠.)

(18-19)는 말할이의 발화에 들을이에 대한 강제성이 다른 대화이다. 먼저, (18ㄱ)은 선생님이 학생들로 하여금 청소를 빨리 끝내도록 하는 발화로서 여기에서 말할이는 학생들이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는 강제성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19ㄱ)은 동생이 언니로 하여금 자신의 숙제를 도와 줄 것을 의도한 발화로서 여기에는 언니가 동생의 발화대로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말할이가 발화에서 들을이에 대해 강제성을 의도하는 경우는 말할이의 힘이 들을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할 경우에 의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8ㄱ)처럼 강제성이 있는 경우는 들을이가 강제성을 반영하여 수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지만, (19ㄱ)처럼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는 말할이의 의도보다 자신의 의도를 내세워 (19ㄴ)처럼 거부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¹⁵⁾

그리하여 발화에 들을이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가에 따라 대화의 방향이 (18)처럼 화합적이 될 수도 있고, (19)처럼 대립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화의 성격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화에 들을이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가 하는 점은 화행의 유형 설정에서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발화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가에 따라 발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겠다. 대화의 상대방

15) 선행 발화의 화행에 이어 후행 발화의 수용과 거부에 대한 화행은 다음에서 다루고자 한다.

인 들을이에게 발화에 대해 선택권을 주는 것은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하나의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이는 들을이에 대한 말할이의 배려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말할이가 발화에서 의도하게 되면 발화가 가지는 성격이 달라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화에 강제성이 있으면 들을이에게 선택권이 없고, 강제성이 없으면 들을이에게 선택권이 있어서, 강제성과 선택권이 서로 상보적인 것으로 선택권을 잉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부담과 강제성에서처럼,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선택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강제성이 없다고 해서 선택권이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강제성과 선택권은 다른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0) ㄱ. 네 생일 선물로 시계가 좋니, 안 좋니?

ㄴ. (그건 싫어요.)

(21) ㄱ. 지금부터는 집에 가도 좋아.

ㄴ. (네, 고맙습니다.)

(20-21)은 말할이가 발화를 통해 들을이에게 주는 선택권에서 차이가 나는 대화이다. 먼저, (20ㄱ)은 생일 선물로 시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들을이의 생각을 이끌어내려는 발화로 들을이의 선택을 의도하고 있다. (20ㄱ)이 들을이의 반응을 반드시 의도한다는 점에서는 강제성을 가진 발화이지만, 말할이가 들을이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점에서 본다면 선택권을 준 경우가 된다.

그리고 (21ㄱ)은 들을이가 원한다면 지금부터 집에 갈 수 있다는 발화로, 여기서는 지금 반드시 집에 가야 함을 의도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발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이러한 발화는 들을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말할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발화이기 때문에 들을이

가 다른 무엇을 위한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20ㄱ)처럼 강제성이 있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21ㄱ)처럼 강제성이 없더라도 다른 선택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화행의 유형 설정에 있어서 발화에 들을이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것과 들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한 가지가 잉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발화에 대해 선택권을 주는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살펴 볼 수 있다. 그래서 (20ㄱ)처럼 선택권이 있는 발화에서는 들을이가 말할이의 의도보다 자신의 의도를 자유롭게 드러내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방향을 (20ㄴ)처럼 대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하면,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21ㄱ)처럼 화합적으로 이끌 수도 있다. 이처럼 말할이가 들을이에 대해 발화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가 하는 점은 앞으로의 대화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화에 들을이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가 하는 점은 화행의 유형 설정에서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위협을 가하는가에 따라 발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겠다.

(22) ㄱ. 나중에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날 줄 알아.

ㄴ. (네, 엄마.)

(22)는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이다. 여기서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행동을 다시 하지 말 것을 의도하고 있는데, 이런 자신의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를 어겼을 경우의 불이익까지 말하고 있다. 이처럼 결과적인 불이익으로 들을이에게 위협을 가하는 발화는 다른 발화에 비해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 대화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의 발화는 극히 제한적으로, 비친교적이면서도 강제성을 가지며 선택권이 없는

발화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위협을 가하는가 하는 점은 제한된 성격의 발화에만 적용이 되지만, 화행의 유형 설정에 있어서는 하나의 하위 기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들을이의 반응을 의도하는 발화로서 들을이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거기에서 의도되는 네 가지 기준, 즉 친교의 목적이 있는가, 들을이에게 부담을 주는가, 강제성을 가지는가, 들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가를 중심으로 하고, 하위 기준인 들을이에게 위협을 가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내용에 관한 의도

- (1) 말할이가 의도하는 반응의 대상이 누구인가
즉, 대화 참여자인 특정 들을이인지, 아닌지
- (2) 말할이가 의도하는 들을이의 반응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즉, 행위에 관한 것인지, 사고에 관한 것인지

2) 들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도

- (1) 들을이와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가
- (2) 부담을 주는가
- (3) 강제성을 가지는가
- (4) 선택권을 주는가
- (5) 위협을 가하는가

Ⅲ. 반응요구 화행의 유형 설정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핀 말할이의 내용에 관한 의도와 들을이

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도에서 설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들을이의 반응을 요구하는 화행의 구체적인 유형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1. 제안 화행

말할이가 요구하는 반응이 들을이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발화가 친교를 목적으로 부담과 강제성을 주지 않으면서 고려의 여지가 있는 일을 제시하는 것으로 들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우, 그 때의 발화는 제안 화행이 된다.

(23) 가. 극장 앞에서 만나는 것은 어때요?

나. (그래요, 그러면.)

(24) 가. 밥부터 먹고 합시다.

나. (그렇시다.)

(23, 24)는 들을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행위에 대해 나누는 대화이다. 먼저, (23가)은 들을이에게 여러 장소 중에서도 극장 앞에서 만나자는 말을 하고 있고, (24가)은 여러 명의 들을이에게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밥을 먹자는 말을 하고 있다. 즉, 여러 가능성의 행위 중에서도 들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23가)의 극장 앞에서 만나는 행위와 (24가)의 밥부터 먹는 행위에 대하여, 들을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들을이로 하여금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23가), (24가)이 비록 “어때요?”나 “-십시오”의 의문과 청유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여기서의 발화의 성격은 친교를 목적으로 들을이에게 부담이나 강제성을 주지 않으면서 선택권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제안 화행으로 설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로는 [행위]¹⁶⁾,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을 들 수 있다.

2. 허가 화행

말할이가 요구하는 반응이 들을이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발화가 친교를 목적으로 하여 부담과 강제성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이어서 들을이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그 때의 발화는 허가 화행이 된다.

(25) ㄱ. 이제 들어와도 좋아요.

ㄴ. (네.)

(26) ㄱ. 감기라서 아이스크림은 안 되는데, 그럼 조금만 먹어라.

ㄴ. (네, 엄마)

(25, 26)은 어떤 요인에 의해 들을이가 하고 싶은 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행위에 대해 나누는 대화이다. 먼저 (25 ㄱ)은 들을이가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고, (26 ㄱ)은 들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25 ㄱ)은 들을이가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말할이가 발화를 통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26 ㄱ)도 마찬가지로 들을이가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지 못하고 있다가 말할이의 발화를 통해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25 ㄱ), (26 ㄱ)이 비록 “좋아”나 “-어라” 따위의 사고 표

16) 여기에서 행위는 사고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의 자질로 표시할 수 없으므로 [행위]로 표시한다.

현이나 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여기서의 발화의 성격은 친교를 목적으로 들을이에게 부담이나 강제성을 주지 않으면서 들을이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으로 들을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허가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¹⁷⁾,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로는 [행위],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을 들 수 있다.

3. 권유 화행

말할이가 요구하는 반응이 들을이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발화가 친교를 목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들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는 하지만 말할이 자신이 의도하는 것이 들을이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들을이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들을이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 그때의 발화는 권유 화행이 된다.

(27) 가. 여기는 위험하니까 넌 여기서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

나. (네, 그럴게요.)

(28) 가. 이제는 제발 담배 좀 끊으세요.

나. (알았어, 알았다고.)

(27, 28)은 들을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행위에 대해 나누는 대화이다. 먼저, (27가)은 들을이에게 가던 길을 되돌아 가기를 말하고 있고, (28가)은 들을이에게 담배를 끊을

17) 선행 발화로서의 허가 화행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개시발화를 말한다.

것을 말하고 있다. 즉, (27ㄱ)은 말할이가 판단하기에 그 지점에서 들을이가 되돌아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들을이에게 안전한 쪽을 의도하고 있다. 그리고 (28ㄱ)도 말할이가 판단하기에 들을이가 습관적으로 피우는 담배를 끊는 것이 그의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하여 들을이에게 이로운 쪽을 의도하고 있다.

여기서 (27ㄱ), (28ㄱ)이 “좋겠다”나 “-세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발화의 성격은 친교를 목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들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는 하지만 말할이 자신이 의도하는 것이 들을이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들을이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로 들을이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권유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로는 [행위],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을 들 수 있다.

4. 요청 화행

말할이가 요구하는 반응이 들을이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발화에 강제성이 없고 들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발화의 중심을 말할이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친교의 목적은 없고 들을이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그 때의 발화는 요청 화행이 된다.

(29) ㄱ. 이 가방 좀 들어 줄래?

나. (응, 그렇게.)

(30) ㄱ. 오늘 안으로 빨리 좀 보내 주세요.

나. (네, 알겠습니다.)

(29, 30)은 말할이가 무엇인가 불편한 점이 있는 상황에서 들을이의 특정 행위에 대해 나누는 대화이다. 먼저, (29ㄱ)은 들을이에게 가방을 들어 줄 것을 말하고 있고, (30ㄱ)은 들을이에게 오늘 반드시 보내 줄 것을 말하고 있다. 즉, (29ㄱ)은 말할이가 자신에게 불편을 주는 가방을 상대방에게 들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불편만 해소하고 상대방인 들을이가 가지게 될 불편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지 않아 자기중심적으로만 말하고 있다. 그리고 (30ㄱ)도 말할이가 자신에게는 없어 불편한 것에 대해 빨리 보내달라는 것으로, 들을이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자기중심적으로만 말하고 있다.

여기서 (29ㄱ), (30ㄱ)이 “- 근래?”나 “-세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발화의 성격은 강제성이 없고 선택의 여지를 주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발화의 중심을 말할이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친교의 목적 없이 들을이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요청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로는 [행위],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을 들 수 있다.

5. 명령 화행

말할이가 요구하는 반응이 들을이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발화가 친교의 목적 없이 들을이에게 부담을 주면서 강제성을 가지고, 들을이가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여도록 하여 선택권은 없으나 위협적이지는 않는 경우, 그 때의 발화는 명령 화행이 된다.

- (31) ㄱ. 꼼짝 말고 여기에 있어야 해.
 ㄴ. (알았어요.)

- (32) ㄱ. 수업 시간에는 떠들지 마라.
 ㄴ. (네, 선생님.)

(31, 32)는 말할이가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특정 행위에 대해 나누는 대화이다. 먼저, (31 ㄱ)은 들을이에게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말을 하고 있고, (32 ㄱ)은 들을이에게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즉, (31 ㄱ)은 말할이가 자신이 원하는 바인 들을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들을이의 생각이나 상황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에서만 말하고 있다.¹⁸⁾ 그리고 (32 ㄱ)도 말할이가 원하는 바인 수업 시간에 들을이가 떠들지 않는 것을 들을이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중심에서만 말하고 있다.

여기서 (31 ㄱ), (32 ㄱ)의 발화 성격은 친교의 목적 없이 들을이에게 부담을 주면서 강제성을 가지고, 들을이가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야 하도록 하여 선택권이 없으나 위협적이지는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명령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로는 [행위],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 [-위협]을 들 수 있다.

18) 이준희(2005)에서는, 말할이의 발화 내용이 명령인가 하는 것은 상대방 말할이가 들을이 자신보다윗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들을이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명령 화행을 들을이 중심의 화행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발화의 화행을 들을이의 판단에 의존할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듯이 개별 차이에 의해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화행의 설정은 일정한 기준으로 말할이의 의도에서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경고 화행

말할이가 요구하는 반응이 가까운 미래에서 들을이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발화가 친교의 목적 없이 들을이에게 부담을 주면서 강제성을 가지고, 들을이에게 선택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협을 가하는 경우, 그 때의 발화는 경고 화행이 된다.

(33) ㄱ. 한 번만 더 약속 어기면 앞으로 용돈은 없다.
 ㄴ. (알았어요.)

(34) ㄱ. 내일부터는 지각하는 사람, 일주일간 벌청소야.
 ㄴ. (네, 알겠습니다.)

(33, 34)는 말할이가 앞으로의 일에 대한 강한 바람을 가진 상황에서 들을이의 특정 행위에 대해 나누는 대화이다. 먼저 (33 ㄱ)은 앞으로 약속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고, (34 ㄱ)은 내일부터 지각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다. 즉, (33 ㄱ)은 말할이가 자신이 원하는 바인 들을이가 약속을 지킬 것을 지키지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34 ㄱ)도 말할이가 원하는 바인 들을이가 지각하지 말 것을 지각했을 경우의 불이익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여기서 (33 ㄱ), (34 ㄱ)이 “-다”나 “-야” 따위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자신의 생각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여기서의 발화의 성격은 친교의 목적 없이 들을이에게 부담을 주면서 강제성을 가지고, 들을이에게 선택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경고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로는 [행위],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 [+위협]을 들 수 있다.

7. 질문 화행

말할이가 요구하는 반응이 들을이의 사고에 관한 것으로, 발화에서 친교의 목적이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으면서 반응에 대한 강제성은 있으나 부담은 주지 않고 들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우, 그 때의 발화는 질문 화행이 된다.¹⁹⁾

(35) 가. 아저씨, 어린이 대공원은 여기서 몇 정류장 앞이에요?
나. (세 정류장만 더 가면 된다.)

(36) 가. 너는 중학생이니?
나. (네, 그런데요.)

(35, 36)은 말할이가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상황에서 들을이의 사고에 관한 반응을 요구하는 대화이다. 먼저 (35 가)은 말할이가 어린이 대공원 정류장에 관하여 알고자 하고 있고, (36 가)은 말할이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알고자 하고 있다. 즉, (35 가)은 말할이가 자신이 모르는 어린이 대공원 정류장에 관한 정보를 들을이에게서 알아내고자 들을이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36 가)은 말할이가 볼 때 들을이가 중학생인지 아닌지 확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들을이에게 이를 확인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의 발화들은 들을이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만 들을이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친교의 목적은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19) 의문 형식의 발화가 실제 대화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발화 수반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의 질문 화행은 들을이에게 정보를 구하거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로 한한다.

(37) ㄱ. 철수 넌 지금 몇 살이니?

나. (열두 살이요.)

ㄱ!. 그럼 초등학교 5학년이겠네?

나!. (네.)

ㄱ". 너희 선생님 좋아?

나". (네, 좋아요.)

:

(37)은 오랜만에 만난 어른과 아이의 대화이다. 이 때 (37ㄱ)의 말할이는 들을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지만, 오랜만에 만난 들을이와 서로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가까워지려고 하는 친교의 목적도 가진다. 이처럼 친교의 목적을 가지는 발화는 대개 들을이와 관계하는 정보에 대하여 거듭 묻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37ㄱ)과 같은 발화는 친교의 목적이 없는 (35ㄱ)이나 (36ㄱ)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35ㄱ), (36ㄱ), (37ㄱ)처럼, 말할이가 자신이 모르는 정보를 알고자 하거나 확인을 원하는 상황에서 발화가 가지는 성격은 친교의 목적이 어떻든지 간에 반응에 대한 강제성은 있으나 들을이에게 부담은 주지 않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질문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로는 [사교],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을 들 수 있다.

8. 호소 화행

말할이가 요구하는 반응이 들을이의 생각이나 느낌, 즉 사고에 관한 것으로, 발화가 강제성 없이 들을이에게 선택권을 주지만, 그

것이 친교의 목적이 아니라 말할이 중심으로 들을이가 바뀌기를 의도하는 것이어서 들을이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경우, 그 때의 발화는 호소 화행이 된다.

(38) ㄱ. 제 형편이 그러니 제발 사정 좀 봐 주세요.

ㄴ. (글쎄, 참.)

(39) ㄱ. 우리 아이가 급한데, 양해 좀 해 주실래요?

ㄴ. (아, 그러세요.)

(38, 39)는 말할이가 다른 사람의 공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들을이의 생각이나 느낌의 변화를 의도하면서 나누는 대화이다. 먼저 (38 ㄱ)은 들을이에게 자신의 형편을 헤아려 줄 것을 말하고 있고, (39 ㄱ)은 들을이에게 급한 사정을 들어 양해해 줄 것을 말하고 있다. 즉, (38 ㄱ)은 말할이가 들을이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자기중심적으로만 말하여 들을이에게 사정을 봐 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39 ㄱ)도 말할이가 들을이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급한 형편을 자기중심적으로만 말하여 들을이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

여기서 (38 ㄱ), (39 ㄱ)이 “-세요”나 “-르래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발화의 성격은 강제성이 없이 들을이에게 선택권을 주지만, 친교의 목적이 아니라 말할이 자기중심적으로 들을이가 바뀌기를 의도하는 것이어서 들을이에게 다소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발화의 유형을 호소 화행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형의 발화가 가지는 기준 자질로는 [사고],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2장에서 살핀 다섯 가지의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반응요구의 목적이 있는 발화의 화행을 제안 화행, 허가 화행, 권유 화행, 요청 화행, 명령 화행, 경고 화행, 질문 화행, 호소 화행으로

설정하였다.

IV. 맺음말

여기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것을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한다.

1. 이 글에서는 대화에서의 발화의 화행 유형을 살피기 위하여 선행 발화를 대상으로 하여, 말할이의 의도가 들을이의 반응까지 의도하는 경우를 다루었다.

2. 들을이의 반응까지 의도하는 발화에서 화행의 유형 설정에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에 관한 의도

기준1: 말할이가 의도하는 반응의 대상이 누구인가

즉, 대화 참여자인 특정 들을이인지, 아닌지

기준2: 말할이가 의도하는 들을이의 반응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즉, 행위에 관한 것인지, 사고에 관한 것인지

2) 들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도

기준1: 들을이와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가

기준2: 부담을 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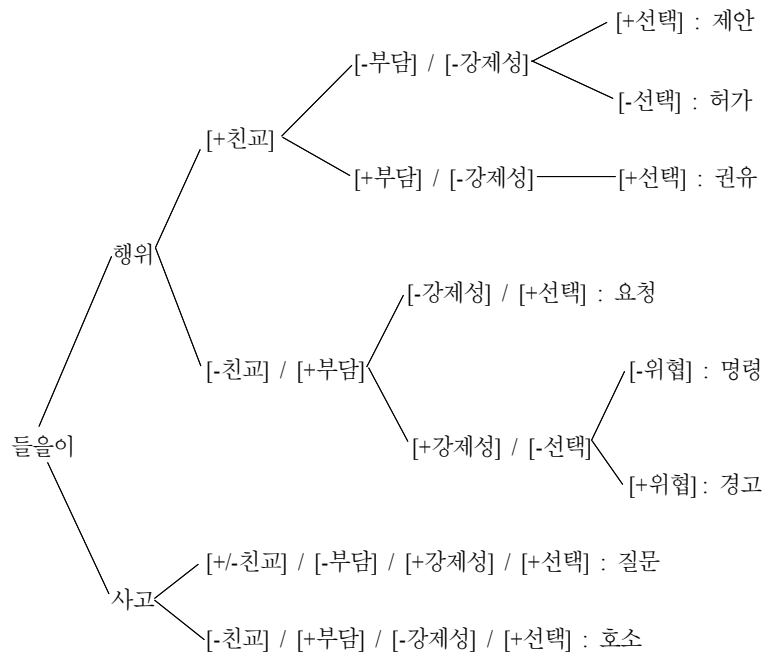
기준3: 강제성을 가지는가

기준4: 선택권을 주는가

기준5: 위협을 가하는가

3. 이 기준에 맞추어 반응요구 화행의 유형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어(Key words): 말할이의 의도(Speaker's intentions), 반응요구(requirement for reaction), 내용(contents of message), 들음이의와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speaker and listener), 행위(action), 사고(thought)

참고문헌

구현정(1997), 『대화의 기법』, 한국문화사.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미령(2003), 『우리말 대응 발화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_____(2005), <전달 목적 화행의 유형 설정에 대한 시도>, 우리말연구 제17집, 우리말학회. 98-111.
- 박영수(1981), 『비표현 수행력 연구』, 형설출판사.
- 백용학(1993), 『화용론과 담화분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 이준희(2000), 『간접화행』, 도서출판 역락.
- 이준희(2005), <언표내적 화행의 유형과 간접 화행>, 우리어문연구 24집, 우리어문학회. 6-8.
- 장석진 편저(1987), 『오스틴』,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석진(1993), 『화용과 문법』, 탑출판사.
- 한국사회언어학회 엮음(2004),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114-115.
- 허 응(1983), 『국어학』, 샘문화사. 261.
- Austin, J.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University Press.
- Fraser, B.(1974), An Analysis of Vernacular Performative Verbs., Indiana University Club.
- Leech, G.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Searle, J.R.(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llocutionary Act Patterns
about Requirement for reaction

Kim, Mi-R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stablish illocutionary act patterns for requirement for reaction. The most important criteria to establish illocutionary act patterns for communicative purpose are speaker's intentions. This speaker's intentions can be subclassified by the contents of messages and relationship between speaker and listener. In the intention about contents of the message, there are two criteria, One is that who is the listener and the other is that what is it about listener. And in the intention about relationship between speaker and listener, there are five criteria, they are friendly relationship, burden, constraint, choice, threat. Following these criteria, illocutionary act patterns are eight. They are 1. Suggestion speech act. 2. Permission speech act. 3. Persuasion speech act. 4. Request speech act. 5. Order speech act. 6. Warning speech act. 7. Inquiry speech act. 8. Appeal speech act.

김미령
인제대학교 연구교수
주소: 경남 김해시 어방동 607번지
전화번호: (055)328-0373(집), 011-9506-2767
전자우편: mmiryung@hanmail.net

이 논문은	2006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11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12월	30일	간행함